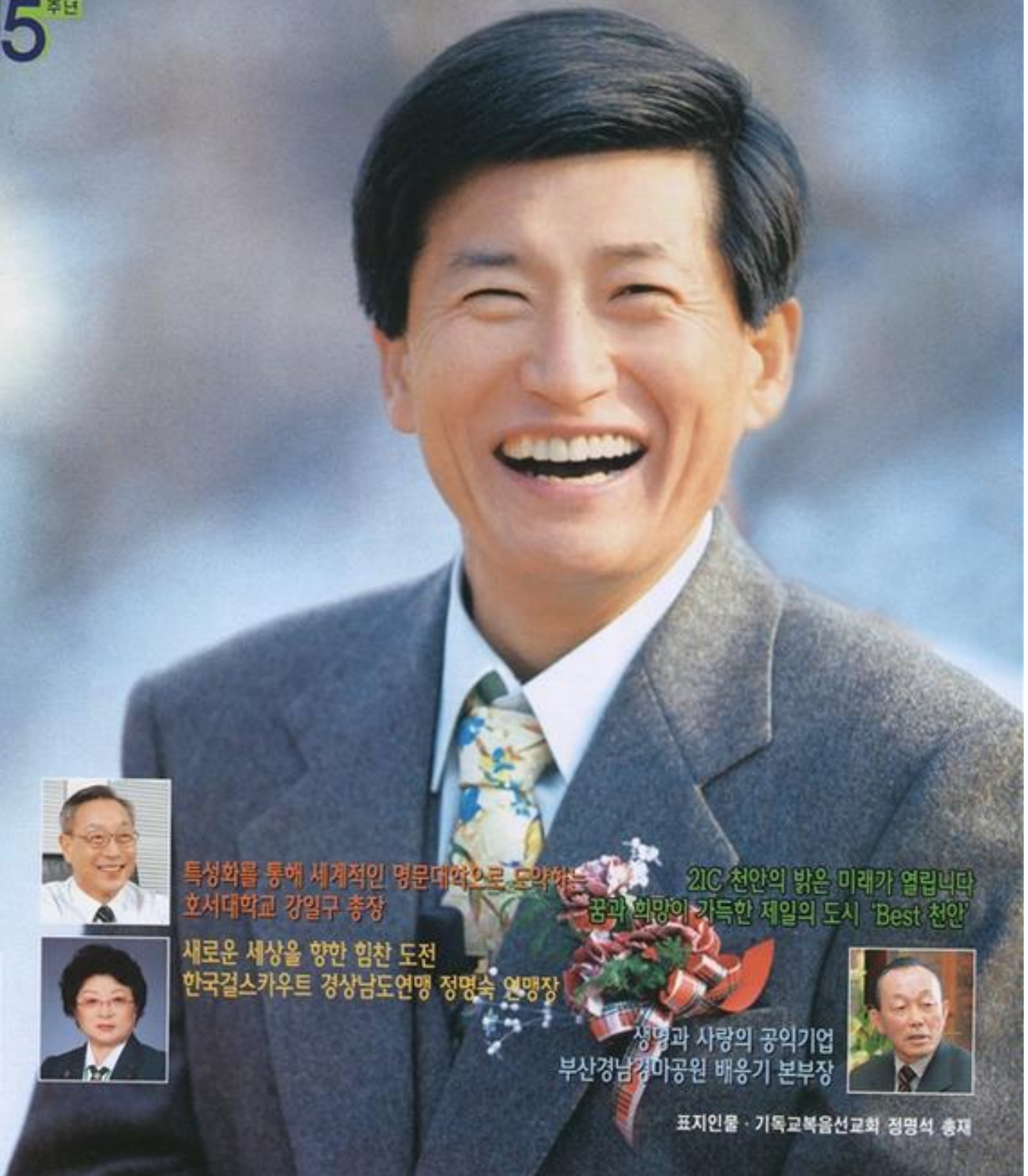


주간 인물



충남지방경찰청 김정식 청장

15주년



특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호서대학교 강일구 총장

21C 천안의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제일의 도시 'Best 천안'



새로운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 한국걸스카우트 경상남도연맹 정명숙 연맹장

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 부산경남경마공원 배웅기 본부장



표지인물 ·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식 총재



91771228-666006 ISSN 1528-8867

새 말씀으로 시대의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 정명석 총재

이 시대 교회는 대형화되고 성도수도 늘어났지만 젊은 청년들은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독교가 분명 삶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곤고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말고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들 믿고, 예수들 이해하고, 예수들 따라 살며, 그들 닮아가다가 그가 계신 곳에 가야만 한다.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이룬 자가 결국 천국을 가는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또한 열심히 믿는 만큼 생활 속에서 하늘 말씀과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그렇게 살아야 할 때이고, 하늘의 완전한 신부로서 그렇게 살도록 피차 권민할 때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창립자인 정명석 총재는 이러한 것을 가르쳤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왔다.

오직 하늘 사람으로 비밀의 말씀 깨달아

정 총재는 우리민족이 일제의 억압을 벗어나던 1945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원명동 마을에서 6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칩침산골에 태어나 가난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정 총재는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주경야독하며 30여 년간의 기도생활을 통해 성경을 무려 2천여 번이나 읽었으며, 1년에 1만여 명씩 전도하면서 성경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 미친 듯 신앙생활을 해 왔다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증언이다.

기자가 만난 기독교복음선교회 배재용 목사는 “정 총재는 누구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분이다.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의욕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으며, 예수님을 예인처럼 섬기면서 하늘을 모시는 도리와 생명구원의 지혜와 진리를 받게 되었다. 정 총재의 유일한 스승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령님이셨다.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진실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하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며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게 해준다”고 증언했다.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보잘것없이 초라하기만 했던 사탄, 정명석 총재. 그러나 이제 아시 아들 비롯한 호주와 유럽, 아메리카 등 해외 50여개 국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세계적 종교



정 총재의 지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지난 2월 서울전도집회에 모인 선교회 회원들은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지도자가 된 그를 찾아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하늘의 역사는 25년이 되는 짧은 기간에 국내에만 400여개의 교회를 두게 됐으며, 해외 50여개 국가에 20만 회원을 둔 복음 공동체로서 급성장하게 됐다. 이러한 점은 하나님께서 정 총재를 통해 이루신 말씀의 위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늘이 주신 선물 철학박사학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문예사조를 통해 정식 시인으로 등단, '영감의 시'라는 베스트셀러를 낸 바도 있는 정 총재. 이러한 그에게 지난 2001년 11월 스리랑카의 유네스코 산하 오픈인터내셔널 대학교(The Open International University for Complementary Medicines)는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대학은 이전까지만 해도 철학박사학위 수여는 반드시 의학박사와 심리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아주 특별하며 상징적인 것이었다. 과거에는 세계 최초로 물을 얼린 결정체 모양으로 평가하는 이론을 확립하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물박사' 명성의 소유자 일본인 에모토마사무 박사가 이곳에서 대체의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이 대학의 전임 교장인 고이벨 교수는 "정 총재로부터 심오한 말씀을 들었으며, 정 총재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수를 교정해 주는 것을 목격한 후 그에게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미 정 총재는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았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종교의 틀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이요, 과학의 하나님이요, 철학의 하나

님이요, 문학의 하나님이요, 예술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 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근본을 깨닫고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을 개발한 정 총재에게 세계 석학들의 인증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단 논쟁은 편견과 억지주장

한국교회의 주류 신학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경향이 짙은데 반해, 정 총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시대성을 두고 비유와 상징을 합리적이면서도 이치적으로 풀어 해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이면서도 신학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다. 정 총재가 오랜 수도 생활 끝에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리한 '30개론'은 성경을 시대성과 역사성에 입각해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참 진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임을 부인할 수가 없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 총재가 30개론과 '성경의 생활 속 실천화'라는 강령을 내걸고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교단들은 오랜 시간 이를 인정치 않고 이단이라며 공격을 가해 왔다.



지난 2003년 10월 5일 힐명동에서 열린 가을제전.



도자기 작업에 여념이 없는 정 총재.

하지만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고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 하늘의 역사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음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 성서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 시비에 휘말리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성경에 감취진 비유와 상징들이 풀려지는 때이며,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이며, 은혜를 입을 만한 때라는 것이다. 오는 봄을 인간이 막을 수 없듯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제 기독교도 새 시대를 따라 새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4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될 새 말씀

정 총재는 종말과 심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다른 교파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세는 지구가 불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측면에서 구시대의 끝과 새 시대의 시작점, 즉 '역사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불심판은 문자대로 실제의 불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리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으로 말세에 모든 영적·육적 문제가 진리말씀으로 풀여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공중휴거 역시 마친가지로 실제로 구름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바로 공중이며, 지구라는 공중에서 지구촌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부활은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메시아를 받고 따름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부활이며,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옮겨지는 시대성의 부활이자 영실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육신으로 돌아가셨으니 그 육신으로는 다시 강림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총재의 가르침에 따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를 구약의 유대종교인들은 하늘에서 강림할 것이라 기다렸지만, 결국 세례요한으로 나타났으며(마17장 12절), 다니엘 7장 13~14절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으로 계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 육신으로 강림한 것이라 전한다. 결국 그 육신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오지 않았으며, 이 시대도 예수의 영적인 강림이 있을 것이고 그와 심령이 일체되고 뜻이 일체되고, 더불어 사랑이 일체되는 자를 통해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정 총재의 가르침이다.

정 총재가 전하는 이러한 성경말씀은 실제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기에 젊은 청년들과 반 시민들을 크게 대표시켰으나, 이와 동시에 기독교계에 이단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선교회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선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은 수단이 있더라도 진리는 수한 없이 영원한 것이라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방송으로 이단 낙인찍혀도 교세는 되레 급성장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단'과 '사이비'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했으나, 교세는 도리어 확장되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러오기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독교는 이제 부분적이고 유아기적인 교리의 해묵은 옷을 벗어버리고 참된 예수의 전면목을 발견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며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노정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총재의 메시지이다.



정 총재는 지난 2008년 8월 제5회 GACP 행사에서 하와이 회원들과 함께 했다.